

노동계 “현대차와 직접 협상”...현대차 “우리는 투자자일 뿐”

각계 요구에도 진전없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지역 각계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 차 공장 설립 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노동계가 현대자동차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지역노동계의 움직임은 초임 4000만원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번 사업은 직접 경영이 아닌 광주시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노동계와 임금 협상에 나설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광주시가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광주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시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중재를 위해 광주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각각 별도로 협의를 가졌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와 지역노동계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측은 지금까지 광주시·현대차 협상 내용 전면 공개와 함께 협상 전과정에 지역노동계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다. 시는 협상 내용 공개는 가능하지만, 지역노동계의 협상 직접 참여는 현대차와 협의한 뒤 다시 논의하는 의견을 냈다.

현대차는 지역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에

시의회, 광주시·한국노총과 별도 중재 협의 접점 못찾아 市 “한발 양보 논의 참여” 촉구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7일 광주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해 그 결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노동계와 직접 협상할 경우 투자자로서의 지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역노동계가 초임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의 이르기 어렵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지역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현대차의 분석이다.

광주시도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사이에서 선풍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초임 연봉에 대한 이견차가 크다. 투자자인 현대차에서 지역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교장단에 이어 광주구청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지역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은 “각계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바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초임 4000만원은 이미 용역에서도 나온 바 있고,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각계의 요청이 있는 만큼 지역노동계가 20여년만에 국내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의 입장을 고려, 광주시와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현대차, 지역노동계 등의 일방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제를 위해 서로 양보하며 최적의 안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 취지”라며 “초임 임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공장인만큼 지속가능하게 흑자 운영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현대차는 각각 자기자본금 2800억원 중 590억원(21%)과 530억원(19%)을 투자해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19만평) 부지에 완성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탁생산 차종은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로, 위탁 규모는 연간 최대 10만대다. 자기자본금 외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4일 10·4 민족통일대회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찾은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가운데)이 환영만찬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 예술단의 광주 공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부탁하고 있다.

리선권 위원장 “北예술단 광주 공연 긍정 검토”

세계수영선수권 참가도 방북 이병훈 부시장 밝혀

“가을이 왔다,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에 대해 북한측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년 만에 처음 열린 10·4민족통일대회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에 다녀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7일 “지난 4일 평양에 도착, 평양대극장에서 열린 환영공연과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북측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 예술단의 광주 공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를 직접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 위원장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것이 이 부시장의 설명이다. 리 위원장이 수영선수권대회 참가와 관련해 “북한 선수단의 실력이 좀 떨어져서 고민이다”고 말하자 “전국민은 물론 전세계가 참가를 바라고 있으며, 남북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이 부시장은 덧붙였다.

이 부시장의 이번 북한 방문으로 ‘가을이 왔다,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 ‘2019 광

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등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시는 2009년 이후 중단된 광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고, 이용섭 광주시장의 방북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시장은 “이 시장의 방북 의사를 전달하였고 북측에서 조만간 초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가을이 왔다,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 제안’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가을이 왔다’ 답방공연은 지방에서도 1~2회 개최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이번 평양방문 기간 중 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북측에 전달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지방공연지로는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를 비롯, 인천(인천아트센터), 고양(고양아람누리), 창원(성산아트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 문제와 관련 조 장관은 지난 평양정상회담에서 문제부담과 함께 북측관계자와 논의를 진행해 10·4 선언 기념행사 평양방문 기간 중에도 북측에 별도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1위

〈여권〉 〈야권〉

리얼미터 여론조사

한국리서치 유시민 급부상

범진보 진영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두를 차지했다. 또, 강홍 출신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홍 출신의 송영길 의원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호남 대망론’이 꿈틀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50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이낙연 총리는 14.6%로 가장 높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11.7%로 2위에 올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9.5%), 정의당 심상정 의원(8.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8.0%), 이재명 경기도지사

(7.4%)가 3~6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3.7%), 민주당 이혜찬 대표(3.3%), 민주당 송영길 의원(3.1%),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3.1%) 순이었다.

범여권·무당층(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천94명, 표본오차 ±3.0%p) 조사에선 이 총리가 16.2%로 박 시장(13.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로 올라섰다. 특히, 이 총리 선호도는 지난 8월 집계보다 2.9%p 높아져 탄탄한 상승 추이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673명, 표본오차 ±3.8%p)에서는 이 총리(19.2%)와 박 시장(16.2%), 김 지사(14.8%) 순이었다.

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경향신문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범여권에서

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11.5%, 유시민 전 장관이 11.1%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6.6%, 이재명 경기도지사 5.8%, 김경수 경남지사 3.1%,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1.5% 순으로 집계됐다.

이 총리가 이처럼 여권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로 부상한 것은 총리로서의 안정된 이미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4선 국회의원과 전남도지사 등을 지내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데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보여준 절제되고 정제된 발언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직 차기 대선까지 3년 6개월이나 남았지만 이 총리의 부상은 여권의 차기 정권 창출 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



이낙연 총리

황교안 전총리

종석 비서실장과 송영길 의원의 차기 대선을 앞두고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오면 강력한 대선 주자로 부상하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대선후보 선호도가 급상승한 유시민 전 장관은 친노친문그룹의 대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눈여겨볼 부분”이라며 “이밖에도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법적문제가 마무리될 경우 강력한 대선후보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후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대만/동남아

일본

상해

299,000원~

상해/항주/주각각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각각 뱃놀이

상해/장가계

1,2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미조여행

대만

614,200원~

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금,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먹거리,볼거리가득

방콕

664,900원~

방콕/파타야 5일,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목요일 3박 5일 토요일 4박 6일

#코끼리트레킹 #발마사지 #다이나미 여행지

다낭

89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본강투어 #후에전통가

기타쿠슈

490,000원~

기타쿠슈/유후인/벳부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 2박4일

#지족은전 #캐널시티

오사카

1,101,2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목,일요일 3박 4일

#사슴공원 #알찬관광일정 #다양한 특식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